

지혜시와 제왕시의 짝으로 본 시편의 구성 연구

-제 1권(1-41편)을 중심으로-¹⁾

김정우* 김진현**

들어가는 말

지난 20세기에 시편 연구는 크게 세 번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서 헤르만 궁켈의 ‘양식분석’(1926),²⁾ 제임스 마일렌버거의 ‘수사분석’(1969),³⁾ 그리고 제랄드 윌슨의 ‘구성분석’(1985)이 있었다.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론의 토대 위에 21세기의 시편 연구가 어떤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시편 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소논문에서 양식분석, 수사분석, 그리고 구성분석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시편의 신학을 탐구해 보려고 한다. 시편의 신학은 이미 요아킴 크라우스가 일곱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대작을 만든 바가 있지만,⁵⁾ 그의 작업은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 총신대학교 Ph.D.

- 1) 이 논문은 김진현, “지혜시와 제왕시의 짝으로 본 시편의 구성 연구”(총신대, Ph.D. 논문, 2019)의 제 1장을 토대로 새롭게 다듬고, 제 40-41편으로 확장하여 김정우와 함께 공동으로 쓴 글이다.
- 2) H. Gunkel, *Psalmen übersetzt und erklär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3), J. Begrich, comp.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 of Israel*, J. D. Nogalski trans. (Mercer Uni. Press, 1999).
- 3) J. Muilenberg,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
- 4) G. H. Wilson,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ago: Scholars Press, 1985).

수사분석과 구성분석이 꽃피기 전인 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므로 최근의 학문적 토론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우리는 특히 구성분석을 통하여 한 권의 책으로서 시편이 그 최종적 형태에서 어떤 신학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구성분석은 제랄드 윌슨의 걸작으로 결정적인 전기가 이루어졌지만, 그는 제 1권에서 3권까지 각권의 매듭에 나오는 제왕시를 통하여 시편의 구성과 신학을 살폈다.⁶⁾ 우리는 윌슨을 넘어서 시편 속에 제왕시와 지혜시가 ‘짝’(pair)으로 나오고 있음을 제 1권을 통하여 논증함으로써, 시편 전체가 ‘토라(지혜)의 화신’인 ‘메시아 다윗 왕’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⁷⁾ 특히 지혜시(토라시)와⁸⁾ 제왕시는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본문이므로,⁹⁾ 지혜시와 제왕시의 짝에 그려진 메시아 왕의 모습이 향후 시편신학과 신약신학의 관계에 대해 어떤 조명을 하는지 살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편에 나타나는 ‘짝시’에 대한 연구 서론

시편 150 수(首)에서 서로 인접한 시들 가운데 독자들은 서로 그 형식과

5) J.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6) G. H. Wilson,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OT* 35 (1986), 85-94.

7) 김진현은 시편에서 1-2, 18-19, 72-73, 89-90, 110-112, 118-119, 132-133, 144-145편을 중심으로 시편의 다섯 권에서 지혜시와 제왕시가 짝을 이루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8) 궁겔은 지혜시를 독립적인 장르로 구별하지 않았다. 머피는 7개의 시편(1, 32, 34, 47, 49, 112, 128편)을 지혜시로 꼽지만, 지혜의 요소를 가진 시들은 많다고 보았다.

R. E. Murphy, “A Consid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Wisdom Psalms,’” in J. A. Emerton et al., eds. *VTSup. 9* (Leiden: Brill, 1963), 156-67. 와이브레이에 따르면, “시편 전집에서 15개의 시편이 지혜 혹은 토라 신학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원래의 성격과 목적을 재해석하였다”고 한다. N. Whybray,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59.

9)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대한성서공회, 2010), 785-90.

내용이 닮은 시들이 나오고 있음을 자주 발견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시편 9-10, 42-43, 111-112, 127-128편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⁰⁾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로렌자인(Lorenzein, 2002)은 “대부분의 시편들은 쌍으로 연합되어 있다(*be united in pairs [in coppia]*). (이 때) 두 번째 시가 첫째 시와 함께 가며, 세번째 시는 두번째 시와 함께 간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한 바가 있다.¹¹⁾ 로렌자인의 통찰을 바탕으로 아타드(Attard)는 시편 49-52편을 중심으로 ‘*Verkettung*’(이웃 시편과의 관계), ‘*Vernetzung*’(시편 그룹을 함께 묶는 것), ‘*Ferneverbindung*’(먼 시편들의 고리)의 관점으로 연구한 바가 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의 기준으로 (1) 장르(*genre*), (2) 언어적 연결(*linguistic connections*)인 어휘적 연결(*lexical connections*)과 의미의 장(*semantic fields*), (3) 구조(*structures*), 그리고 (4) 주제(*themes*)를 제시하였다.¹²⁾

로렌자인의 관점은 제랄드 윌슨 이후에 시편의 구성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었다. 하지만 와이브레이(Whybray, 1996)에 따르면 이미 레인들(Reindl, 1980)이 <세계 구약학회>(IOSOT)에서 시편에서 짝시들(*pairs*)과 그룹시들(*groups*) 사이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마르코 마틸라(Marttila, 2006)는 레인들(Reindl)보다 앞서 침멀리(Zimmerli)가 “근접한 두 개의 시편이 비슷한 언어(*vocabulary*)와 주제(*theme*)로 나올 때, 그 시들을 ‘짝시’ 또는 ‘쌍시’(*twin psalm*)로 불렀다”고 말한다.¹³⁾ 즉, ‘짝시’ 혹은

10) 윌슨도 인접한 시편들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첫 부분에 나란히 놓는 기술과 ‘핵심 구절’(catch phrase)이 함께 나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Wilson,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195-96.

11) T. Lorenzein, *1 Salmi* (Milano: Paoline, 2002), 578, cited from S. Attard,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Pss 49 and 50 within the Context of Pss 49-52,”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 Zenger ed. (Leuven et al, 2010), 415.

12) Attard,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Pss 49 and 50 within the Context of Pss 49-52,” 417-23.

13) Marko Marttila, *Collective Reinterpretation in the Psalms* (Tuebingen: Mohr Siebeck, 2006), 67-68. W. Zimmerli, “Zwillingspsalmen,” in *Wort, Lied, und Gottesspruch*:

‘쌍시’라는 용어는 현재의 문헌들을 살펴 볼 때 침멜리(1972) 혹은 레인들(1980)에게서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윌슨(2005)도 “제왕시와 지혜시가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처음 발표하였다.¹⁴⁾ 그렇지만, 윌슨이 제왕시와 지혜시가 짝시로서 함께 배열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지혜시와 제왕시가 짝으로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한 학자는 그란트(Grant, 2004)로 보인다. 그는 “시편 1-2, 18-21, 118-119편은 신명기 17:14-20의 왕권 신학에 기초한 토라와 메시아 시편의 세 그룹으로서 시편 전체의 초점(focal identity)을 제공한다. 왕권 시편을 토라 시편과 나란히 둔 것은 시편의 편집이 신명기의 왕의 율법 신학을 반영하도록 의도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¹⁵⁾ 그렇지만, 그란트는 시편 전권의 배열과 각 권의 매듭에서 이 두 장르의 시편들이 쌍으로 나온다는 점까지는 확장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지혜시와 제왕시가 많은 경우 짝으로 나올 뿐 아니라, 각 권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전략적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시편의 신학이 ‘지혜자인 메시아 왕’, ‘메시아 왕인 지혜자’라는 중심 사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찾아 보려고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계로 우리는 시편 1권에서 전략적 자리를 잡고 있는 시편 1-2편과 수미일치를 이루는 40-41편과 그리고 제 1권의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18-19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시편의 짝시 혹은 쌍시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학자들에 따라 (1) 장르

Beitraege zu Psalmen und Propheten, J. Schreiner ed. (Wuerzburg: Echter Verlag, 1972), 105-13. 이성혜 교수에 따르면 Zimmerli는 1-2, 3-4, 9-10, 30-31, 31-32, 32-33, 38-39, 39-40, 40-41, 43-44, 69-70, 73-74, 74-75, 77-78, 79-80, 80-81, 105-106, 111-112, 그리고 127-128편 등 20 개의 시를 ‘쌍시’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private communication).

- 14) G. Wilson, “The Structure of the Psalter,”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P. S. Johnston and D. G. Firth eds. (IVP, 2005), 229-230.
- 15) James A. Grant, *The King as Exemplar: The Function of Deuteronomy’s Kingship Law in the Shaping of the Book of Psalms* (SBL, 2004), 2. 또한 idem, “The Psalm and the King,”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P. S. Johnston and D. G. Firth eds. (IVP, 2005), 115.

(genre), (2) 언어적 연결(linguistic connections), (3) 구조(structure), (4) 주제(theme)를 제시하기도 하고(Attard), (1) 어휘적 대구(verbal parallel), (2) 사상(ideas) 혹은 주제(theme)의 일치(correspondence), (3) '편집적 조정'(editorial adjustment)를 제시하기도 한다(Brownlee). 우리는 (1) 장르(genre), (2) 어휘 의미론적(lexical semantics) 조응, (3) 이미지(image)의 조응, (4) 주제(theme)의 조응, 그리고 (5) 구성적 배열(editorial arrangement)의 기준을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¹⁶⁾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미지'의 조응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한 시의 생명은 그 이미지의 절묘함에 있으므로 인접시들 사이에 이미지의 조응은 짝시일 가능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토라의 헌신자, 메시아 왕의 이상(理想, 시편 1-2편)

시편 1-2편이 시편의 최종 편집 단계에서 하나의 '짝'으로 구성되었음을 학술적으로 처음 제시한 학자는 브라운리(Brownlee, 1986)이다. 그는 시편 1, 2편이 각각 '지혜시'(wisdom psalm)와 '제왕시'(royal psalm)로 독자적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었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 한 명의 즉위식을 위하여 서로 이어지고(joined to) 접합되었다(knitted together)"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¹⁷⁾ 그는 이 두 시편이 '짝'이나 '쌍'을 이룬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성'(unity)을 이루는 '단일시'(a single psalm)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⁸⁾ 그는 자신의 논지의 출발점을 '고대의 전통'으로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3:33의 '서방 본문'에서 시편 2편을 '첫째 편'으로 읽는 전통과 랍비 문헌들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아래와 같이 시편 본문의 내적 증거를 따라 두 시의 통일성을 제시한다.

16) 이 글에서 시편의 장절 구분은 마소라 본문(MT) 대신에 한글 성경을 따른다.

17) W. H. Brownlee, "Psalms 1-2 as a Coronation Liturgy," *Biblica* 52 (1971), 332.

18) *Ibid.*, 322, 325.

첫째로, 언어적 일치 및 연관성으로서 (1) ‘행복한’(יְשָׁרָא, 1:1; 2:12), ‘앓다’(נָפַח, 1:1; 2:4), ‘묵상하다’(חָשַׁב, 1:2; 2:1), ‘갈’(הָלַךְ)에서 ‘망하다’(נָפַח, 1:6; 2:12)가 나음을 제시한다.¹⁹⁾

둘째로, 주제의 일치로서 (1) 제 1편의 ‘악인의 꺾’(1:1)와 제 2편의 ‘열국이 모여 서로 꺾히는 것’(2:2), (2) 제 1편에서 의인이 주님의 율법을 낭송하는 것(1:2)과 제 2편에서 왕이 주님의 칙령을 전하는 것(2:7), 그리고 (3) 제 1편에서 의인의 행동함과 성공과 제 2편에서 주님의 ‘아들’이 열국들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 서로 대응하며 나음을 제시한다.²⁰⁾

셋째로, 편집적 관점에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맨 앞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이 시편 1편에 추가되고 개작되어서 이 두 편이 시편 전권의 멋진 서론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유다 왕의 즉위시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가설적 견해를 제시한다.

우리는 브라운리가 제시한 근거보다 더 확실하고 풍부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찾아 보았다.

2.1. 장르의 조응

시편 1편은 지혜시, 교훈시, 혹은 토라시, 그리고 제 2편은 제왕시로 분류됨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즉, 시편의 최종 편집자는 지혜시(토라시)와 제왕시를 시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대문으로 세우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시편의 세계에서 지혜시(토라시)와 제왕시가 서로 조응하도록 첫 두 편에서부터 짝을 이루며 나오도록 배열되었다. 나아가 우리는 제 1편의 지혜시 속에 제왕의 모습이 있으며, 제 2편의 제왕시 속에 지혜자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며 두 장르의 시가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 조응하

19) Ibid., 322.

20) Ibid., 324.

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어휘 의미론적 조응²¹⁾

앞에서 브라운리는 어휘적 관점에서 네 개의 단어들이 두 시편의 통일성을 이룬다고 논증하였지만, 어휘 의미론적으로 볼 때 언어적 조응은 아래와 같이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오고 있다.²²⁾

1편	2편
죽정이(מִץ, 4절)	헛됨(רִיק, 1절)
묵상하다(הִגָּה, 2절)	꾸미다(הִגָּה, 1절)
(자리에) 앉다(יָשַׁב, 1절)	(하늘에) 계신 이(עֲצָה, 4절)
토라(תּוֹרָה, 2절)	칙령(קִח, 7절)
피(עֲצָה, 1절)	지혜롭다(שָׂבַל, 10절)
길(דֶּרֶךְ, 1절)	길(דֶּרֶךְ, 12절)
복 있는 자(אֲשֶׁר־הָאִישׁ, 1절)	복 있는 자(אֲשֶׁר־כָּל, 12절)
망하다(אָבַד, 6절)	망하다(אָבַד, 12절)

(1) 시편 1, 2편은 ‘복 있는 사람’(אֲשֶׁר־הָאִישׁ)으로 시작하고(1:1), ‘모두 복되다’(כָּל אֲשֶׁר־)로 마쳐(2:12) 수미일치를 이룬다.

(2) 제 1편에서 의인은 ‘죄인들의 길’(דֶּרֶךְ)에 서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며(1절), 제 2편에서 반역자들은 ‘길’(דֶּרֶךְ)에서 ‘곧 망할 수 있을 것이다’로 다시 수미일치를 이룬다(12절).

(3) 제 1편에서 의인은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הִגָּה, 2절),

21) 우리가 ‘일치’보다 ‘조응’(照應, affinity, correspond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확한 일치를 포함하여 다소 넓은 의미에서 서로 어울리는 것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조응’은 의미의 장(semantic field)을 내포한다.

22) 우리는 어휘 의미론적 조응을 나열함에 있어서 앞 시보다 뒷시의 절을 기준으로 삼았다.

2편에서 반역자들은 반역을 ‘꾸민다’(קָנְנָה, 1절).

(4) 제 1편에서 의인은 주님의 ‘토라’(תּוֹרָה)를 묵상하지만, 2편에서 메시아 왕은 주 하나님의 ‘칙령’(פֶּקֶד)을 선포한다(7절). 토라와 칙령은 언약에서 핵심적인 의무의 용어들이다.

(5) 제 1편에서 의인은 악인의 ‘찌’(פָּעַל)를 따르지 않지만(1절), 제 2편에서 열왕들은 ‘지혜를 얻도록’(לְהַכִּיף)의 히필형) 권면을 받는다(10절). ‘찌’는 원래 ‘모략’으로서 지혜 용어이다.

(6) 제 1편에서 악인의 이미지인 ‘쭉정어’(צִיָּה, 4절)는 제 2편에서 민족들이 꾸미는 ‘헛된 일’(קִיָּה, 1절)과 의미론적으로 이어진다.

(7) 제 1편의 마지막 단어는 ‘망하다’(נָכַח, 6절)이며, 제 2편의 마지막 절에도 ‘망하다’(נָכַח, 12절)가 나온다.

2.3. 이미지의 조응

시편 1, 2편에서 표면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공간적 관점에서 제 1편의 ‘동산 이미지’(3절)는 제 2편의 ‘거룩한 산 시온’과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 이미지는 아니다. 두 시편에서 이미지의 조용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제 1편에 ‘왕’의 이미지가 있느냐 하는데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이미 브라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가 고대근동아시아에서 ‘왕’의 이미지임을 논증한 바가 있다. 그는 먼저 이집트의 지혜문헌인 아메넴-오페트(Amenem-opet)의 교훈에서 “참으로 조용한 사람은 정원에 심긴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두 배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주 앞에 선다”를 인용한다.²³⁾ 여기서 ‘조용한 사람’은 왕의 모사이며, ‘그의 주는 왕을 가리킨다. 나아가 브라운리는 구약성경이 이집트의 지혜를 각색한 예로 다윗의 유언을 꼽는다. 다윗의 유언에서 ‘왕’은 식물

23) Ibid., 326, ANET, 422.

이미지로써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의 이미지로 나오며, 악인들은 그와 대비되는 ‘가시나무’로 그려지고 있다(삼하 23:4, 6).

브라운리 이후에 콜(Cole, 2002)은 시편 1, 2편의 ‘통합적 읽기’(integrated reading)를 제안하면서, 제 1편의 ‘나무’ 이미지는 바로 ‘시온 산 성전에 심긴 나무’로서 바로 제 2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가리킨다고 보았다.²⁴⁾ 특히 그는 1:3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심겨지다’(לְשַׁמְרָה)라는 동사와 2:6의 ‘시온에 세움받다’(שִׁמְרָה)라는 동사가 각각 전치사 ‘알’(עַל)과 함께 구를 만들어 ‘의미론적 유사성’(semantic resemblance)을 이루고 있음도 제시하였다.²⁵⁾ 나아가 그는 1:3에서 ‘열매를 맺다’(לָקַח)와 2:8에서 ‘열방을 주다’(לָקַח)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으며, 1:3의 ‘시절을 좇아’(בְּעֵתוֹ)와 2:10의 ‘그러나 이제’(הַיּוֹם)는 시간성에 있어서 서로 일치점을 보여준다고 파악하였다.

비텐그렌(Widengren, 1951)에 따르면,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미지가 왕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왕이 생명나무로 그려진 것은 일반적인 모티프이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옮겨 심긴’ 나무 이미지가 제 2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의 모습과 서로 조응한다면, 이 두 시편 사이에 이미지 일치가 이루어진다. 사실 히브리어 ‘나사크’(נָסַח)의 일차적 의미는 ‘두다, 세우다’(to set, install)이므로, ‘옮겨 심다’(לְשַׁמְרָה, transplant)와 의미론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4) R. L. Cole, “An integrated reading of Psalms 1 and 2,” *JSOT* 26 (2002), 80.

25) *Ibid.*, 76.

26) *Ibid.*, 331. Cf. G. Widengren, *The King and the Tree of Life in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Uppsala Universitets Arsskrift, IV; 1951), 42-58. cited from Brownless, 331. 보다(Botha)도 시편 1편의 나무를 ‘생명나무’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무들은 강가에 있어도 잎이 시들지만, 이 시편의 ‘나무’는 잎이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P. J. Botha, “Interpreting ‘Torah’ in Psalm 1 in the light of Psalm 119,” *HTS Theologese Studies* 68 (2012), 1-2.

2.4. 주제의 조응

앞에서 브라운리가 제시한 세가지 주제의 조응을 이어서 콜(Cole, 2002)도 두 시편 사이에 (1)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망함’, (2)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온 산에 앉은 왕’, (3) ‘열매를 주는 것’과 ‘열방을 주는 것’, (4) 그리고 ‘복과 망함’의 주제에 있어서 상당한 일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²⁷⁾ 그렇지만, 브라운리와 콜이 열거하는 주제는 사실 주제라기보다 ‘모티프’에 가깝다. 우리가 볼 때, 시편 1편의 중심 주제는 ‘토라’라기보다 ‘사람’이다.²⁸⁾ 그는 ‘복된 그 사람’(אַשְׁמְרֵת צְדָקָה)으로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대비된다(1절). 그의 일과(‘주야’)는 ‘토라 묵상’이다(2절). 그는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 옮겨 심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고(3절), ‘회중’(קָהָל) 안에 살며(5절),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범사에 형통하다(יְצַלֵּחַ, 6절). 그가 속한 의인의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과 대비된다. 한 마디로 시편 1편의 주제는 토라 공동체를 이루고 인도하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시편 2편의 중심 주제도 ‘사람’이다. 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מָשִׁחַ, 2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מֶלֶךְ, 6절), ‘하나님의 아들’(בֶּן, 7절)이다.²⁹⁾ 그는 지금 시온 산에서 주 하나님의 범세계적 주권을 땅에서 실현할 왕으로 세움 받고 있다. 그의 대관식 때 세상의 못 나라들과 민족들의 왕들과 군주들이 그의 통치를 대적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1-2절). 메시아 왕은 그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도록 권면하고 있다(10절). 만약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망할 수 있다(12절).

시편 1편의 의인은 바로 ‘토라의 화신’인 ‘왕’이며, 제 2편의 ‘왕’은 ‘하나

27) Cole, “An integrated reading of Psalms 1 and 2,” 76-88.

28) 김정우, 『시편주석』 1 (총신대 출판부, 2005), 148.

29) 로벗슨은 제 2편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 ‘시온 산에서 그의 통치 실현’, ‘다윗 왕가의 영원한 통치’, 그리고 ‘주님의 왕권과 다윗 왕권의 합병’과 같은 요소들이 주요 주제라고 주장하였다. Robertson, *The Flow of the Psalms: Discovering Their Structure and Theology*, 57. 김현수 역, 『시편의 흐름』 (성약, 2019).

님의 칙령(צִוְיָהּ, פֶּה)으로 세움 받은 다윗 왕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교훈’으로써(10-11절)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이룰 지혜자라는 점에서 이 두 시편의 핵심 주제는 서로 일치한다.

2.5. 구성적 관점

요약하자면, 시편의 대문을 여는 제 1편과 제 2편은 각각 ‘지혜시(토라시)’와 ‘제왕시’로서 어휘, 이미지, 모티프 및 주제에 있어서 서로 ‘짝’과 ‘쌍’을 이루며, 시편 전체의 주제와 신학의 요약(compendium)으로 시편의 세계를 열고 있다. 로벳슨은 이 두 시편의 통일성과 전략적 위치에 근거하여 ‘토라’와 ‘메시아’가 시편의 ‘시적 기둥’(poetic pillars)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³⁰⁾ 시편 2편은 시온 산 메시아의 대관식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제 1편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종말론적 메시아 왕이 토라의 신실한 제자로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토라의 온전한 제자, 메시아 왕의 우주적 승리(시편 18-19편)

오늘날 여러 시편 학자들은 제 1권 안에서 시편 15-24편이 자충족적인 한 그룹(a self-contained group)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찌기 패트릭 밀러(Miller, 1995)는 “[시편 15-24편]은 그 배열을 통하여 신학적 상상을 위하여 함께 읽도록 짜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³¹⁾

30) Ibid., 13.

31) P. D. Miller, “Kingship, Torah Obedience, and Prayer,” in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K. Seybold and E. Zenger eds. (Freiburg: Herder, 1995), 127. Cited from W. P. Brown,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 15-24,” E. Zenger ed. (Leuven et al, 2010), 259-79.

구성적 관점에서 맥콘빌(McConville, 2001)은 시편 15-24편이 성도의 순례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작하는 15편은 그 무대(scene)를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시내산의 ‘장막’에서 머무르다가 마지막으로 24편에 있는 시온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 안에서 제 18편은 ‘실제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주며, 19편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시인을 보호해 주시는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³²⁾ 최근에는 길링햄(Gilingham, 2010)이 이 단락 안에 나오는 열편의 시들을 모두 ‘입장 의식 시편’으로 여기고 ‘성전 표지’(temple markers)가 있음을 제시하며 교차 대구 패턴으로 짜여져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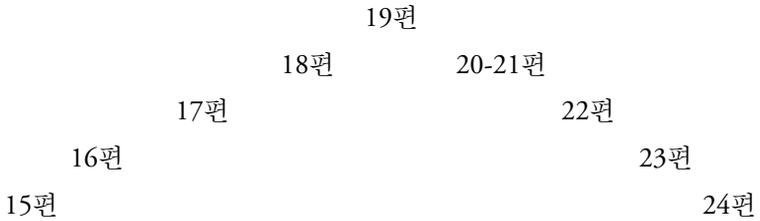
브라운(Brown, 2010)도 이 단락의 시들을 다루면서, 특히 장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들이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음을 관찰하였다.³⁴⁾ 그렇지만, 그는 단지 평면적인 교차대구로 볼 것이 아니라 야노프스키(B. Janowski)의 은유를 따라 ‘말씀의 산’(einen Berg aus Worten)으로 보고, 산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례길의 여정으로 보자는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³⁵⁾

32) J. G. McConville, “Who May Ascend the Hill of the LORD?’ The Picture of the Faithful in Psalms 15-24,” in *Praying by the Book: Reading the Psalms*, C. G. Bartholomew and A. West ed.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1), 35-58.

33) Susan Gilingham,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 Zenger ed. (Leuben: Uitgeverij Peeters, 2010), 101. 입장 의식시(15/24편 [A, A’]); 신뢰시(16/23편 [B, B’]); 예가(17/22편[C, C’]); 전쟁의 승리에 관한 왕의 감사시(18/20-21편[D, D’]); 창조주와 토라 수여자에 대한 찬양(19편[X]).

34) William Brown,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ben: Uitgeverij Peeters, 2010), 260. 입장 의식시(15/24편 [A, A’]); 신뢰의 노래(16/23편 [B, B’]); 도움을 구하는 기도(17/22편 [C, C’]); 제왕시(18/20-21편 [D, D’]); 토라시(시19편 [X]).

35) Ibid., 261.



브라운에 따르면 시편 15편과 24편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 일치하며, 19편은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학적인 텔’(theological Tel)로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길링햄이나 브라운의 관찰에 따르면 시편 18편과 19편의 상호적 관련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편 18편과 19편의 언어적 연관성은 반 게메렌(VanGemerem, 2008)이 앞서 제시하였다. 그는 이 두 시편 사이에 “하늘로부터 크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18:9, 13, 16; 19:1-6), 온전한 삶(18:20; 19:12-14),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18:30; 19:7-11), 그리고 다윗의 온전함(18:20; 19:12-14), 계시의 온전함(18:30; 19:7-8) 등이 구성적으로(compositionally)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관찰하였다.³⁶⁾

로벳슨은 시편 18-19편이 다윗 시편의 제 1권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key role)을 한다고 보고 이 두 시편은 ‘메시아 시편’을 ‘토라 시편’의 ‘짝’(coupling)으로 만든다는 주장을 하였다.³⁷⁾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이 두 시편이 시편을 열어주는 제 1편의 토라 시편과 제 2편의 메시아 시편을 ‘반사한다’(mirror)고 보았다. 로벳슨은 시편 18편과 19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에 대한 언어적 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제 1권에서 이 두 시편이 ‘짝’으로서 제 1권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두 시편이 제 1권에서 ‘전환점’(pivot)을 이룬다는 점에 대한 논거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36) W. A. VanGemerem, *Psalm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213.

37) Robertson, *The Flow of the Psalms*, 66-67.

(1) ‘메시아적-왕권’ 용어인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편 2편에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의 아들’로 처음 나온 후 제 1-17편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제 18편에서 처음 나오며(50절), 이어서 ‘왕’(20:9; 21:1, 8), ‘기름부음 받은 자’(20:6; 28:8)로 나온다.³⁸⁾

(2) 시편 18, 19편 바로 직후에 다섯 개의 제왕시가 연이어 나온다(20-24 편).³⁹⁾

(3) 토라 용어들은 시편 1, 2편 이후에 제 18, 19편에 처음 나오며(10:5을 제외함), 19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다(25:10; 34:11; 37:31; 40:8).⁴⁰⁾

(4)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토라의 핵심에 속한 것으로서 19편 이후에 주로 나오고 있다(25:4-5; 27:11; 32:8; 34:11). 즉, 18-19편이 ‘전환적 성격’(transitional character)을 가진다.⁴¹⁾

(5) 마지막으로 시편 18편은 제 1권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반석’으로 찬양하며(2, 31, 46절), 이 이미지는 19편으로 이어지고(14절), 뒤따르는 시편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28:1; 31:2, 3; 27:5; 40:2).

이상의 논거에 근거하여 로벗슨은 “18편의 메시아 시편과 19편의 토라 시편은 짝(coupling)을 이루며, 제 1권 안에서 발전을 시사하는 구조적 이정표(structural marker)로 역할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²⁾ 즉, 로벗슨 이전의 여러 학자들은 주로 장르를 중심으로 시편 19편이 홀로 전환점을 만든다고 보았지만, 로벗슨은 장르 뿐 아니라, 제 1권의 신학을 살피면서 18편과 19편이 짝으로 전환점을 만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 시편 18, 19편이 강력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38) Ibid., 68.

39) Ibid., 69-73.

40) Ibid., 73.

41) Ibid., 74-75.

42) Ibid., 78.

3.1. 장르의 조음

시편 18편이 제왕시라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시편 19편은 찬양과 토리시의 합성시로 보기도 하지만, 제 1연의 태양 찬가는 제 2연의 토라 찬가를 위한 배경 음악을 만들고 있으므로 전체를 토라시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3.2. 어휘-의미론적 조음

18편	19편
표제: 다윗의 시	표제: 다윗의 시
하늘(שָׁמַיִם, 9, 13, 16절)	하늘(שָׁמַיִם, 1, 4절)
세상(תְּבִלָּה, 15절)	세상(תְּבִלָּה, 4절)
장막(מִטָּה, 11절)	장막(מִטָּה, 4절)
흑암(חֹמֶת, 11절)	태양(שֶׁמֶשׁ, 5절)
길(דֶּרֶךְ, 21, 30절)	길(דֶּרֶךְ, 5절)
말씀(דְבַר, 30절)	말(דְבַר, 3절)
소리(קוֹל, 6절)	소리(קוֹל, 3절)
완전한(תָּמִים, 23, 25, 30절)	완전한(תָּמִים, 7절)
깨끗함(בָּר, 명사, 20절)	순결한(בָּר, 8절)
주님의 범도(מִשְׁפָּט, 22절)+ (등을) 밝히다(אִיר, 29절)	주님의 범도(מִשְׁפָּט, 9절)+토리용어들 (눈을) 밝히다(אִיר, 9절)
(계명) 지키다(שָׁמַר, 21, 23절)	(계명) 지키다(שָׁמַר, 11절)
중(עֲבָד, 표제, 메시아, 50절)	중(עֲבָד, 11, 13절)
상주심(גִּמְלוֹ, 20-21절)	상이름(עֲקָב, 11절) ⁴³⁾

43) 히브리어 ‘에케브’(עֲקָב)는 (1) ‘끝까지’(시 119:33), (2) (결과로서) 상급(사 5:23),

죄악(רֵשָׁע, 23절)	고범죄(רֵשָׁע), 반역죄(עֲשָׂוֹן, 13절)
어둠(חֹשֶׁךְ, 28절 cf.11 ‘흑암’)	금하다(חָשַׁךְ, 13절)
반석(צוּר, 2, 31, 46절)	반석(צוּר, 14절)
큰 구원(יְשׁוּעוֹת, 46, 50절)	구속자(גּוֹאֵל, 14절)

위에 나오는 다양한 어휘 및 의미론적 조응 중에서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이 두드러진다.

(1) 시편 18편은 제 1권에서 유일하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하늘’(9, 13, 16절)과 ‘땅’(11절), ‘스울’(4-5절), ‘세상의 티’(15절)로써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편 19편은 ‘하늘’(1, 4절)과 ‘궁창’(1절), ‘세상’(4절)으로 조응하고 있다. 또한 18편의 하늘의 ‘흑암’과 ‘구름’(11절)은 19편의 ‘태양’(5절)과 대조적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18편에서 하늘의 ‘흑암’과 ‘뿔뿔한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כִּבֵּה, 11절)인데, 19편에는 태양을 위하여 베풀어 둔 하늘의 ‘장막’(אָהֳל, 4절)은 서로 다른 장막 용어로서 멋진 시적 조응을 이룬다. 즉, 이 두 시는 우주의 공간 구조를 표현하는 어휘들에서 서로 조응한다.

(2) 이 두 시편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반석’(צוּר)이 되실 뿐 아니라 ‘반석’이 수미일치를 이룬다(18:2, 31, 46; 19:14).

(3) 이 두 시편에서 시인은 주님의 ‘종’(עֶבֶד)이다(18편 표제; 19:11). 특히 18편에서 ‘주님의 종’은 본문 안에서 ‘다윗’과 ‘기름부음 받은 자’(מְשִׁיחַ)로 명시된다(50절).

(4) 이 두 시편에서 시인은 토라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송축한다. 18, 19편에서 주님의 토라는 다양한 용어들로 소개되지만, ‘규례’(מִשְׁפָּט, 18:22)가 19편과 공통 용어로 나온다(9절). 또한 18편에서 ‘주님의 말씀’(אִמְרַת־יְהוָה)은 19편에서 창조의 세계가 전하는 ‘소리’(אָמַר)와

(3) -때문에(시 40:16; 민 14:24)의 의미를 갖는다(HALOT). 특히 19편의 ‘상급’(עָקַ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로서 기본형에서 ‘발목을 잡다, 속이다’(창 27:36; 렘 9:3; 호 12:4)는 뜻이며, 41:9에서 시인을 향하여 ‘발꿈치’(עָקַב)를 드는 자’로 나온다.

‘말’(דַּבָּרִים)로 조용하는 점이 흥미롭다(3절).

(5) 두 시인은 토라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사모하며(תָּמִים, 18:23, 25; 19:7), 계명을 지키고(שָׁמַר, 18:21, 23; 19:11),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18:23; 19:13), 주님의 ‘상주심’을 사모한다(נָמַל, 18:20-21; עָקַב, 19:11).

(6) 두 시인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יְשׁוּעוֹת), 18:46, 50; נוֹאֵל, 19:14).

(7) 특히 알렌(Allen)은 두 시편에서 주님과 토라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⁴⁴⁾ 즉, 주님 자신이 ‘깨끗하심’과 같이(בָּר, 18:26) 토라가 깨끗하며(בָּר, 19:8), 주님께서 ‘빛을 주심’ 같이(אֹר, 18:28) 토라가 ‘빛을 주며’(אֹר, 19:8), 주님께서 ‘완전하심’ 같이(תָּמִים, 18:30) 토라가 ‘완전하다’(תָּמִים, 19:7).

3.3. 이미지의 조응

시편 18편은 탁월한 제왕시답게 너무나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들로 가득하지만, 이 시편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인상적인 이미지는 ‘반석’이다(צֶוֶשֶׁת, 2, 31, 46절). 시인은 ‘나의 반석’(צֶוֶשֶׁת)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시를 연다(2절). 반석은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과 같은 군사적 이미지로 확장되고 심화된다(2절). 시인은 ‘주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31절)는 수사 의문을 던지는 이 지점에서 반석 이미지는 서론의 찬양에 나오는 반석 이미지와 뉘앙스가 달라진다. 앞에서 반석은 완전한 피난처로서 왕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노래했다면, 여기의 ‘반석’은 언약 전통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주님으로서, “주님 사역의 완전하심과 정의로움과 그 성품의

44) Leslie C. Allen, “David as Exemplar of Spirituality: the Redactional Function of Psalm 19,” *Biblica* 67 (1986), 546.

신실하심, 의로우심, 정직하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신 32:4, 13, 15, 18, 30, 31, 37; 삼상 2:2).⁴⁵⁾ 시인의 마지막 찬양은 ‘나의 반석’(צוּרִי)과 ‘나의 구원의 하나님’(יְיָ אֱלֹהֵי)이신 주님이시다(46절). 바로 ‘반석’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큰 구원’이 되신다(יְשׁוּעָה, 46, 50절). 놀랍게도 시편 19편의 시인은 ‘나의 반석’(צוּרִי)과 ‘나의 구속자’(גּוֹשֵׁ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시를 마친다. ‘구속자’(גּוֹשֵׁט)이신 주님은 힘찬 권능으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 내시고(출 6:6),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사 41:14, 43:14, 44:6, 44:24, 47:4, 48:17, 49:7, 49:26, 54:5, 54:8, 59:20, 60:16, 63:16). 만약 13절에 나오는 ‘오만한 죄’(גַּיַּיִת בְּכִסְיָהּ)와⁴⁶⁾ ‘대역죄’(כֹּחַ עֲשָׂה)가 시인 자신이 범한 죄악이 아니라 시인의 원수들의 죄악으로서,⁴⁷⁾ 시인이 그들의 죄에 감염되고 오염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의 ‘반석’과 ‘구속자’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시인은 거룩한 반석 되시는 주님과 전능한 구속자가 되신 주님께 자신의 묵상을 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리하여 시편 18편과 19편은 ‘반석’이신 주님으로 수미일치를 이룬다.

3.4. 주제의 조응

시편 18편은 제왕시로서 왕의 승리를 경축하는 절기에 사용된 시로 보이지만, 중심 주제는 ‘다윗 왕’(50절)이 주님 토라의 온전한 제자임을 증거하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아래와 같이 이 시편을 다섯 연으로 나누어 본다면,

45) M. Knowles, “The Rock: His Work is Perfect: Unusual Imagery for God in Deuteronomy 32,” *VT* 39 (1989), 312. Cited from Sh. L. Klouda, “The Dialectical Interplay of Seeing and Hearing in Psalm 19 and Its Connection to Wisdom,”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0 (2000), 189.

46) ‘傲慢の罪’(JAS), ‘故意の罪’(KOG) 참조.

47) “이 두 시편이 병치된 관점에서 볼 때, 압도적인 세력으로서 ‘오만한 죄’에 대한 묘사는 다윗의 군사적 대적들을 영적 전투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Allen, 546).

이 시편의 구조가 제시하는 주제는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⁴⁸⁾

- (1) 서론적 찬양과 구원의 확신천명(1-3절, A)
- (2) 죽음의 위협과 주님의 구원 보고(4-19절, B)
- (3) 토라의 제자를 지키시는 주님 찬양(20-31절, X)
- (4) 왕의 승리와 우주적 왕권(32-45절, B')
- (5) 구원의 주님 찬양및 감사(46-50절, A')

사실 시편 18편에서 주님의 토라와 토라를 주신 주님을 송축하는 제 3연(20-31절, X)은 시인의 위협과 구원(B)과 우주적 승리(B')를 거두는 전체적인 플롯에서 다소 이외의 주제이다. 그렇지만, 시인의 구원과 승리는 그의 온전한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시편 신학의 관점으로 본다면(시 15, 24, 72, 89편 등), 제 3연은 이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연의 핵심 주제는 주님 토라의 온전한 제자인 다윗 왕이다. 이 연은 ‘주님의 도’(דָּוִד)로 수미일치를 이룬다(21, 30절). 주님의 토라는 ‘길’(דָּוִד, 21, 30절), ‘규례’(מִשְׁפָּט, 22a), ‘율례’(דָּבָר, 22b), ‘주님의 말씀’(מִוֹתֵי דָּוִד, 30a)으로 소개된다. 주님의 토라는 ‘완전하고’(תָּמִים, 30a), ‘순결하다’(טָהוֹר, 30b). 시인은 주님의 토라를 따라서 ‘온전하고’(תָּמִים, 23, 25절), ‘깨끗하고’(טָהוֹר, 20절), ‘의롭게’(קָדָשׁ, 24절) 살았다. 즉, 시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와이브레이(Whybray)는 “시편 18편이 26-30절에서 지혜의 요소들로 장식되었다(emblesed with wisdom elements)”고 잘 말했다.⁴⁹⁾

시편 19편도 구조적으로 독특하다. 이 시편은 천지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1-6절)에서 ‘태양’이 초점화 되며(4b-6절), 자연세계의 태양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로서 ‘토라에 나타난 주님 영광’(7-13절)으로 짜여

48) 김정우, 『시편주석 1』, 425-430.

49) N. Whybray,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90.

있다. 즉, 이 시편은 ‘창조의 물리적 증거’(‘the physical witness of creation’)에서⁵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토라로 넘어가고 있다. 즉, 제 1연의 ‘태양 찬가’는 제 2연의 ‘토라 찬가’를 위한 배경을 만들어 준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19편은 18편에 서론적으로 소개된 토라의 총체적 모습을 만개시켜 보여주고 있다. 이 시편에서는 드디어 주님의 계시의 이름을 ‘토라’(תּוֹרָה)로 밝히며(7a), 토라의 다양한 모습으로서 ‘증거’(עֵדוּת, 7b), ‘교훈’(דְּבָרִים, 8a), ‘계명’(מִצְוָה, 8b), ‘주님 경외하는 도’(דֶּרֶךְ יְיָ, 9a), ‘규례, 법도’(מִשְׁפָּט, 9b)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또한 토라의 속성으로서, ‘완전하다’(תָּמִים, 7a), ‘확실하다’(נֶאֱמָן, 7b), ‘정직하다’(רָפָא, 8a), ‘순결하다’(רַב, 8b), ‘정결하다’(רָהוּט, 9a), ‘진실하다’(אֱמֶת, 9b)로 정의한다. 특히 시편 18:30에서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개정), 즉, ‘티가 없다’(공동, 표준)는 용어(רָפָא)는 ‘제련하다, 정제하다’(smelt, refine)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9편에서 이 이미지는 ‘순금’(זָהָב)으로 조용하고 있다. 시편 19편의 시인은 ‘주의 종’으로서(11절) 토라의 온전한 제자로서 자신의 목상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14절).

결론적으로 시편 18편과 19편을 병치시킨 것(juxtaposition)에 대하여 알렌(Allen)은 “다윗의 경험을 신자 개인의 경험과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토라의 독실한 제자(devout student)를 위하여 다윗 시편을 개인에게 적용하려는 편집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보았다.⁵¹⁾

3.5. 구성적 관점

구성적 관점에서 여러 시편 학자들은 시편 18편이 20-21편과 짝을 이루며, 19편은 홀로 우뚝 솟은 시로 절정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50) Klouda, “The Dialectical Interplay of Seeing and Hearing in Psalm 19 and Its Connection to Wisdom”, 187.

51) Allen, “David as Exemplar of Spirituality”, 546.

18편이 19편과 긴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제 20-21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 두 시는 제왕시이며, 그 배경에 있어서 20편은 ‘전쟁 전의 기도’이며, 21편은 ‘전쟁의 승리 후에 드리는 감사시’이다. 어휘의 관점에서 시인은 ‘왕’(מֶלֶךְ, 20:9; 21:1; 7)으로서 ‘주님의 구원’(שִׁמּוּץ, 20:5, 6, 9; 21:1, 5)과 ‘권능’(הַבְּרָכָה, 20:6; 21:13)을 찬양한다. 시인은 주님께 ‘기도하고’(לְאַחַד, 20:5; 21:4), 주님은 ‘마음의 소원’(הַתְּאַוָּה, 20:4; 21:2)을 ‘들어주신다’(נָתַן, 20:4; 21:4). 시인은 말이나 전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הִתְאַוָּה, 20:7; 21:7). 즉 이 두 시편은 제왕시로서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시편 20-21편은 왕의 승전 감사시로서 시편 18편과 조응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두 시편에서 시인은 ‘기쁨부음 받은 자’(שִׂמְחָה, 20:6)이며, ‘왕’(מֶלֶךְ, 20:9; 21:1, 7)이다. 그렇다면, 시편 구성의 흐름을 볼 때, 제 20-21편은 19편을 뒤따라 나오면서 19편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편 안에서 독자들은 제왕적 성격을 발견하기 쉽지 않으므로 시편의 편집자는 20-21편을 19편 뒤에 뒹미으로써, 19편의 제왕적 성격을 뒷받침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19편의 ‘마음의 묵상’(14절)은 뒤따르는 두 시편에서 ‘마음의 소원’(20:4; 21:1)으로 이어지고, 19편에서 시인이 사모한 ‘정금’(זָהָב, 10절)은 21편에서 왕이 쓰는 ‘정금 관’(זָהָב טַבַּעַת)으로 조응하고 있다(21:4).

4. 토라의 실천자, 메시아 왕의 간구(시편 40-41편)

제랄드 윌슨이 한 권의 책으로서 시편의 최종적 모습(final shape)을 처음 다룰 때, 제 1권을 마무리하는 두 시편인 40, 41편을 주목하지 않았다. 윌슨에게 있어서 시편의 정경적 구성의 뼈대는 제왕시들인 시편 2, 72, 89편이 핵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실 40, 41편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혜시나 제왕시의 범주에 들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시편의 최종 편집에 있어서 지혜

화(sapientializing) 경향과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제 1권을 마무리 하는 이 두 시편 안에도 토라 지혜와 메시아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을 따라 이 두 시편을 새롭게 보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4.1. 장르의 조음

먼저 장르의 관점에서 시편 40편은 표면구조에서 개인 감사시(1-11절)와 개인 애가(12-17절)의 합성시로 나온다. 그렇지만, 개인 감사시에 애가의 요소들이 나오며, 개인 애가에도 감사의 요소가 나오므로 이 이질적인 요소들의 합성은 이 시편의 의식적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⁵²⁾ 그렇지만, “이 시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본 시편을 다시 보면, 시인이 회중의 지도자이다(10절). 그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는 데 있다(7절). 이 구절에 대한 최고의 배경은 바로 신명기 17:14-20에 나오는 ‘왕의 규제’이다. 즉, 이 시인은 신명기의 규례를 준행하여야 할 ‘왕’이다. 나아가 그는 ‘주님의 토라’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고백을 통하여 이미 새 언약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다(8절). 즉, 시편 40편은 일차적 장르에 있어서 개인 감사나 개인 애가로 볼 수 있지만, 그 심층 구조에서는 제왕시와 토라시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볼 있다.⁵³⁾ 우리는 본 시편을 ‘준-지혜시’로 보았다. 왜냐하면 본 시편에는 지혜시의 특징적인 어휘들로서, ‘복 있는 사람’(4절), 주님을 ‘의지하다’(3, 4절), ‘교만한 자와 거짓신을 따르지 않다’(4절), 주님의 생각을 ‘셀 수 없다’(5절), ‘두 귀를 열다’(6절), ‘기뻐하다’(6절), ‘두루마리 책’(7절), ‘주의 뜻’과 ‘주의 법’,

52) 김정우, 『시편주석 1』, 851.

53) 김정우, 『시편주석 1』, 852. 본 시편을 ‘왕의 간구 의식시’(a royal liturgy of supplication)로 보는 입장은 J. Eaton, *Kingship and the Psalms*, 42-44 참조.

‘내 마음’(8절), ‘주의 진리’(11절)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41편도 40편처럼 학자들에 따라 ‘개인 애가’(Gunkel, Gerstenberg)나 ‘개인 감사시’(A. Anderson, Weiser 등)로 분류한다. 그렇지만, 40편처럼 주인공의 관점에서 볼 때 시인은 백성의 지도자로 보인다. 이미 피셔(Fisher)는 본 시편의 배경을 왕이 병든 상황에서 그의 대적들이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상황으로 제시한다. 즉, ‘내 떡을 먹는 자가 그 발꿈치를 든다’는 은유는 우가렛의 왕 케렛이 병들었을 때 그의 아들 야시브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UT 127:43-57).⁵⁴ 시인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 기원을 받으며(2절), 자신의 ‘의’에 대하여 천명하는 모습(12절)은 제왕시에 나오는 다윗 왕의 모습과도 일치한다(시 18, 72편). 따라서 우리는 본 시편을 ‘준-제왕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어휘-의미론적 조음

40편

표제: 다윗의 시

가난한 자(עני), 궁핍한 자(אביון, 17절)

복 있는 사람(אשרי הגבר, 4절)

건지다(טלטל, 17절)

수많은 재앙(רעות[복수], 12절)

웅덩이(בור), 수렁(טֹט, 2절)

거짓(כזב), 4절)

세우다(קום, עָלָה, 2절)

죄가 많다(עון, 12절)

찬송하다(הלהלל, 3절)

41편

표제: 다윗의 시

가난한 자(לל, 1절)

복 있는 사람(אשרי משכיל, 1, 2절)

건지다(טלטל, 1절)

재앙(רעה), 1절)

병상(הַיַּרְשָׁ, 3절)

거짓(אָשֵׁ, 6절)

일어나다(קום, 8, 10절)

범죄하다(חטא, 4절)

악담하다(רע, אָמַר, 5절)

54) 김정우, 『시편주석 1』, 874. L. R. Fisher, ‘Betrayed by Friends: an Expository Study of Psalm, 22,’ *Interpretation* 18 (1964), 20-38.

‘하하’ 조롱하다(חָסַח חָסַח, 15절)	수근거린다(שָׁנַן, 7절)
은혜를 베풀다(נָצַח, 13절)	은총을 베풀다(נָנַח, 10절)
기뻐하다(יָצַח, 8절)	기뻐하다(יָצַח, 11절)

위에 나오는 다양한 어휘 및 의미론적 일치와 조응 중에서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이 두드러진다.

(1) 두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사가 서로 일치한다(40:4; 41:1). 41편의 시인은 “이 세상에서 복 받은 자”(רַשְׁעִים)로 선포된다(2절).

(2) 40편의 ‘가난한 자’(עָנִי)와 ‘궁핍한 자’(אֲבִיּוֹן, 40:17)는 41편의 ‘가난한 자’(לָךְ, 1절)와 어미론적 일치를 이룬다.

(3) 두 시인은 많은 재앙을 당하며(40:12; 41:1), 웅덩이와 수렁(40:2)과 병상(41:3)에서 죽음의 위협과 대적들의 도전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40:15; 41:7).

(4) 주님은 두 시인을 ‘건지시며’(40:17; 41:1), 반석에 ‘세우시고’(40:2),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며’(41:8, 10), 은총을 베푸신다(40:13; 41:10).

(5) 두 시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다(40:12; 41:4).

4.3. 이미지의 조응

이 두 시편 사이에는 표면적으로 선명한 이미지의 일치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40편의 시인이 자신이 믿고 살아야 할 ‘두루마리 책’(מִגְלַת סֵפֶר)에 기록된 주님의 ‘기쁘신 뜻’(רְצוֹן)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고(יָצַח), 주의 ‘토라가 내 심중에 있다’()는 고백(8절)은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다’(מָנַח בְּתוֹךְ תּוֹרָתְךָ)는 구(1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를 보살피다’는 구는 느헤미야 8:13에서 ‘율법의 말씀은 밝히 알게 하다’(הַתּוֹרָה אֶל־דְּבָרֵי הַשְּׂכִיל)는 뜻으로 나오기 때문이다.⁵⁵⁾

55) 김정우, 『시편 주석 1』, 876.

4.4. 주제의 조음

제 1권의 마지막 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있다. 40편의 시인이 ‘복 있는 사람’(אַשְׁרֵי הַבְּרָכָה, 4절)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죽음의 시련 앞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그의 ‘신뢰’(בְּטָחָה)를 두었기 때문이다(4절). 문맥을 보면 시인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הִתְקַן [2회], 1절). 그래서 주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2절). 즉, 시인이 살아 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אֲבָרָךְ, 3절). 결론적으로 시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지혜의 공식을 만든다(4절). 시인이 만든 지혜의 공식은 마지막 연(13-17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이중 운명으로 적용된다. 즉, 거짓과 교만으로 의인을 죽이려고 하던 악인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만(14-15절),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은 구원과 신원을 받는다(16-17절).⁵⁶⁾

시편 41편의 시인은 ‘축복사’(אַשְׁרֵי מַשְׁכִּיל)로 그의 시를 연다(1절). 시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선언하는 자는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이다(개정). 즉, 40편에서 주님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시인은 이제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실제적으로 보살피는 실천적 경건을 구현하는 지혜자로 나타나고 있다.

4.5. 구성적 관점

제랄드 윌슨은 그의 첫 걸작(1985)에서 이미 시편 전체의 편집에서 각편을 잇는 ‘매듭들’(seams)의 중요성을 관찰하면서, “시편 2, 41, 72, 89편에는 (다윗) 왕권(kingship)과 다윗 언약(Davidic covenant) 사상에 관한 흥미로

56) So-Ra Kang, “Reading Book 1 of the Psalter through the ‘Ashrey Saying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D. dissertation, 2007), 171. “이 두 그룹의 최종 운명은 5절에 있는 ‘복 있는 자’의 선언을 반사한다(mirror)”.

운 발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⁵⁷⁾ 즉, 제 41편에서 다윗은 저자로서 그에 대하여 악담하는 원수들 앞에서 주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다 (4, 7, 11-12절)고 보았다. 그렇지만, 윌슨은 시편의 장르와 텍스트 안에 내재된 어휘적이고 의미론적인 연결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시편 40편이 준-지혜시이고, 41편이 준-제왕시로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우리의 결론이 타당하다면, 시편 제 1권은 지혜시와 제왕시로서 수미일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네 시편 사이에 어휘적-의미론적 일치점과 조응을 아래와 같이 찾아 보았다.

1, 2편	40편	41편
복이 있다(אֲשֶׁר־י, 1:1; 2:12)	복이 있다(אֲשֶׁר־י, 4절)	복이 있다(אֲשֶׁר־י, 1, 2절)
지혜 얻다(הַשְׂכִּילֹה, 2:11)	지혜롭다(מְשֻׁכֵּלִי, 1절)	
오늘날(הַיּוֹם, 2:7)		그날에(1절)
망하다(אָבַד, 1:6)		망하다(אָבַד, 5절)
(열매) 주다(נָתַן, 1:3)	(새 노래) 주다(נָתַן, 4절)	
의지하다(הִסָּדָה, 2:12)	의지하다(5절)	
구하다(שָׁאַל, 2:8)	구하다(6절)	
즐거워하다(הִפְיִן, 1:2)	즐거워하다(הִפְיִן, 8절)	기뻐하다(הִפְיִן, 11절)
	기쁨(רִצּוֹן, 8절)	
토라(תּוֹרָה, 1:2)	토라(תּוֹרָה, 8절)	
의인(צַדִּיק, 6절)	의(צַדִּיק, 9절)	
견디지 못하다(קוּם, 1:5)	세우다(קוּם, 3절)	세우다(קוּם, 12절).
인정하다(יָדַע, 1:6)	알다(יָדַע, 9절)	알다(יָדַע, 11절)
회중(קָהָל, עָרָה, 1:5)	회중(לְקָהָל, 9, 10절)	

(1) 제 1권은 제 1-2편의 지혜시와 제왕시로 시작하며 다시 마지막 두 편에서 준-지혜시와 준-제왕시로 수미일치를 이룬다. 이 네편의 시에서 ‘행복한 사람’(1:1; 2:12; 40:4; 41:1, 2)은 주님을 의지하고(시 2:12; 40:4), 토라를

57) Wilson, *The Editing of Hebrew Psalter*, 209.

묵상하며 밝히 아는 왕의 모습으로 시작과 끝을 이룬다(1:1-2; 41:1).⁵⁸⁾

(2) 제 1편에서 주님의 ‘토라’(תּוֹרָה, 2절)는 제 40편에서 다시 나타나며 (8절), 특히 ‘두루마리 책’(מִגְלַת סֵפֶר)으로 구체화된다(7절).

(3) 제 1편의 시인이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듯이’(צִיָּן, 2절), 40편의 시인도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한다’(8절). 토라는 그에게 ‘기쁨’이 된다(8절).

(4) 제 1편에서 시인은 ‘의인의 회중’(לְקָהָל)에 속하며(5절), 40편에서 시인은 ‘성도의 회중’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한다(10절)

(5) 제 1편이 바라보는 ‘의인’은 제 40편에서 주님의 ‘의’(רָצוֹן, 9절)와 ‘진리’(אֱמוּנָה), ‘성실하심’(אֱמוּנָה), ‘인자하심’(רַחֲמִים)을 믿음의 회중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로 나온다(10절).

(6) 제 1편에서 악인은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עָמַד) 못하지만, 40편에서 주님은 시인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עָמַד, 3절), 41편에서 주님은 시인을 ‘영원히 세우신다’(עָמַד, 12절).

(7) 제 1편에서 주님은 시인을 ‘인정하시며’(עָמַד, 6절), 40편에서 시인이 한결 같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함을 주님께서 ‘아시고’(עָמַד, 9절), 41편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을 ‘내가 안다’(עָמַד, 11절)고 고백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18-19편과 40-41편 사이에도 어휘, 이미지, 주제 사이에 있는 조응이 나온다.

18편	19편	40편	41편
재앙(רָעָה, 16절)		재앙(רָעָה, 12절)	재앙(רָעָה, 1절)
원수(17절)		원수(14-15절)	원수(2, 5절)
사망, 스올(4-5절)		웅덩이, 수렁(2절)	병(מַלְאָכָה, 3절)
부르짖다, 들다(6, 41절)		부르짖다, 들다(1절)	
반석(רֶבֶךְ, 2, 31, 46절)	반석(רֶבֶךְ, 14절)	반석(רֶבֶךְ, 2절)	
발(33절), 걸음(36절)		발, 걸음(2절)	

58) 시편 제 1권에서 ‘복있는 사람’은 시편 1, 2편과 40, 41편 외에 세 번 더 나온다(32:2; 33:12; 34:8). 이 세 시편(32, 33, 34편)에서도 지혜의 모티프가 두드러진다.

교만한 눈(רְמוֹחַ עֵינַיִם, 27절)	교만한 지(הַרְבִּים), 4절	
상주심(גְּמֹל, 20-21절)	상이름(עֲקָב, 11절)	발꿈치(עֲקָב, 9절)
완전함(תָּמִים, 23절)	완전함(תָּמִים, 7절)	온전함(תָּם, 11절)
법도(מִשְׁפָּט, 22절)	법도(מִשְׁפָּט, 9절)	두루마리책(7절)
	토라(תּוֹרָה, 7절)	토라(תּוֹרָה, 8절)
죄악(עֲוֹן, 23절)	죄과(עֲשָׂה, 13절)	죄(הָאָהָה, 7절)
	기쁨(שִׂשׂוֹן, 5절)	기쁨(הִפְיִין, 8절)
	기쁨(הִפְיִין, 8절)	기쁨(הִפְיִין, 11절)
구원(יְשׁוּעָה, 46, 50절)	구속자(גּוֹאֵל, 14절)	구원(יְשׁוּעָה, 16절)
		건짐(טָלַט, 1절)

(1) 시편 18편의 주인공은 ‘나의 재앙의 날’(יּוֹם אִיֵּדִי, 18절)에 대해 말하며, 시편40편의 시인도 ‘많은 재앙’(רַעוֹת) 가운데 있고(12절), 41편의 시인은 ‘재앙의 날’(יּוֹם רָעָה)을 언급한다(1절). 시인들의 재앙은 그들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몰고 오는 죽음의 세력들이다.

(2) 시편 18편의 시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듯이(6, 41절), 40편의 시인도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한다(1절).

(3) 시편 18, 19, 40편의 시인은 모두 주님께서 그의 ‘반석’(צוּר)이심을 찬양한다(18:2, 31, 46; 19:14; 40:2). 41편의 시인은 ‘주께서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마친다(12절).

(4) 주님의 법도와 토라를 온전히 지키는 모티프는 네 시편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시편 18편에는 ‘주님의 도, 규례, 율례’(21-23)를 시인이 ‘온전히 지켰고’(23절), 19편의 시인은 주님의 토라의 완전함을 찬양하고(7-14절), 40편의 시인은 주님의 토라가 ‘두루마리 책’으로 나오며(7절), 자신의 내면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8절), 41편의 시인은 주님께서 ‘그의 온전함 중에 지키심’을 감사드린다(11절).

(5) 주님은 18편 시인에게 ‘큰 구원’을 베푸셔서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שָׁטַח, 2절), ‘물에서 건지시며’(הִשָּׁה, 16절),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신

다'(טִלְפָּ, 43절). 주님은 19편 시인에게 '구속자'가 되시며, 40편의 시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41편의 시인을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טִלְפָּ, 1절), '죽음의 병상에서 고치신다'(3절). 18편의 '건지다'(טִלְפָּ, 43절)와 41편의 '건지다'(טִלְפָּ, 1절) 사이에는 음성학적 유희가 있다.

(6) 가장 흥미로운 조응은 동일한 단어를 반대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19편의 시인에게는 '상'(רָעָה)이 크지만(11절), 41편의 시인은 그가 신뢰하던 자가 그에게 '발꿈치'(רָעָה)를 들었다고 탄식한다(9절).

나가는말

우리는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통찰을 얻게 되었다. 첫째로, 시편 전집의 최종적 형성에 있어서 지혜시와 제왕시는 각권의 매듭에서 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가정을 제 1권에서 확인하였다.

둘째로, 시편 제 1권은 제 1-2편과 40-41편이 각각 지혜시와 제왕시로 짝을 이룰 뿐 아니라, 지혜시(1편, A)와 준-지혜시(40편, A') 및 제왕시(2편, B)와 준-제왕시(41편, B')로 짜여져 이중 프레임을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로, 시편 18-19편은 그 스케일과 신학적 비중에 있어서 제 1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장르와 주제에 있어서 1-2편과 40-41편의 주제를 확고하게 연결하고 있다.

넷째로, 시편 제 1권의 지혜시 속에는 다윗 왕의 이상적 모습이 나오며, 제왕시 속에는 주님 토라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 가는 종말론적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토라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 가는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지혜시(토라시), 제왕시, 짝시, 구성, 구성 분석, 메시아, 시편 1, 2, 18, 19, 40, 41편

<Key Words>

wisdom psalm (torah psalms), royal psalm, pair psalms, composition, editorial approach, Messiah, Psalm 1, 2, 18, 19, 40, 41.

* 접수일 2020년 8월 21일, 수정일 2020년 9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5일

참고문헌

- 김정우, 『시편주석』 1,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5.
- Allen, Leslie C., “David as Exemplar of Spirituality: the Redactional Function of Psalm 19,” *Biblica* 67 (1986), 544-546.
- Attard, S., “Estalishing Connections between Pss 49 and 50 within the Context of Pss 49-52,”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d. E. Zenger, Leuven et al, 2010, 413-41.
- Brown, W. P.,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259-77.
- Botha, Philippus J., “Interpreting ‘Torah’ in Psalm 1 in the light of Psalm 119,” *HTS Theologiese Studies / Theological Studies* 68 (2012), 1-7.
- Brownlee, . H., “Psalms 1-2 as a Coronation Liturgy,” *Biblica* 52 (1971), 321-36.
- Cole, Robert Luther, “An integrated reading of Psalms 1 and 2,” *JSOT* 26 (2002), 75-88.
- Creach, Jerome F. D., “Like a Tree planted by the Temple Stream. The Portrait of the Righteous in Psalm 1:3,” *CBQ* 61 (1999), 34-46.
- Eaton, John H., *Kingship and the Psalms*, London: SCM Press, 1976.
- Firth, David G., “The teaching of the Psalms,”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s. Philip S. Johnston and David G. Firth. IVP, 2005, 159-74.
- Susan E. Gillingham,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ed. E. Zenger, Leuven: Uitgeverij Peeters, 2010, 91-123.
- Grant, Jamie A., “The Psalms and The King,”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s. Philip S. Johnston and David G. Firth, IVP, 2005, 101-118.
- Klouda, Sh. L., “The Dialectical Interplay of Seeing and Hearing in Psalm

- 19 and Its Connection to Wisdom,”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0 (2000), 191-95.
- Knowles, M., “The Rock: His Work is Perfect: Unusual Imagery for God in Deuteronomy 32,” *VT* 39 (1989), 317-32.
- Lorenzein, T., *1 Salmi*, Milano: Paoline, 22002.
- Marttila, Marko, *Collective Reinterpretation in the Psalms*, Tubingen: Mohr Siebeck, 2006.
- McConville, J. G., “‘Who May Ascend the Hill of the LORD?’ The Picture of the Faithful in Psalms 15-24,” in *Praying by the Book: Reading the Psalms*, ed. C. G. Bartholomew and A. West,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1, 35-58.
- Miller, P. D., “Kingship, Torah Obedience, and Prayer,” in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ed. K. Seybold and E. Zenger, Freiburg: Herder, 1995, 127-41.
- Murphy, R. E., “A Consideration of the Classification ‘Wisdom Psalms’”, in J. A. Emerton et al. eds., *Congress Volume*, VTSup. 9, Leiden: Brill, 1963, 156-67.
- Robertson, Palmer O., *The Flow of the Psalms: Discovering Their Structure and Theology*, New Jersey: P&R Publishing, 2015.
- VanGemeren, Willem A., *Psalm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5, Rev. ed.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Whybray, N.,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Wilson, G. H., *The Editing of Hebrew Psalter*, Atlanta: SBL Press, 1985.
- _____, “The Structure of the Psalter,” i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eds Philip S. Johnston and David G. Firth, IVP, 2005, 229-46.
- Zimmerli, W., “Zwillingpsalmen,” in *Wort, Lied, und Gottesspruch: Beitrage zu Psalmen und Propheten*, ed. J. Schreiner, Wuerzburg: Echter Verlag, 1972, 105-13.

<초록>

지혜시와 제왕시의 짝으로 본 시편의 구성 연구

-제 1권(1-41편)을 중심으로-

김정우

(총신대 명예교수)

김진현

(총신대학교, Ph.D.)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지혜시와 제왕시가 많은 경우 짝으로 나올 뿐 아니라 각 권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전략적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면서(1-2, 18-19, 72-73, 89-90, 110-112, 118-119, 132-133, 144-145편), 시편의 신학이 ‘지혜자인 메시아 왕’, ‘메시아 왕인 지혜자’라는 중심 사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찾아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논문의 제한 때문에, 이 주제를 제 1권 중에서 1-2, 18-19, 40-41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랄드 윌슨이 한 권의 책으로서 시편의 최종적 모습(final shape)을 처음 다루었을 때 그는 제왕시들인 제 2, 72, 89편이 시편의 구성적 뼈대를 이룬다고 보았으므로, 제 1권을 마무리하는 두 시편인 40, 41편의 구성적 역할을 주목하지 않았다. 제 40, 41편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혜시나 제왕시의 범주에 들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 두 시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사회적 위치, 어휘, 주제 등을 볼 때 이 시들은 각각 준-지혜시와 준-제왕시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제 1권은 지혜시(1편), 제왕시(2편), 준-지혜시(40편), 준-제왕시(41편)로 이중 프레임으로 짜여 있다.

우리는 ‘짝시’(pair psalms)를 이루는 기준으로, (1) 장르의 조응, (2) 어휘 의미론적 조응, (3) 이미지의 조응, (4) 주제의 조응, 그리고 (5) 구성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는 제 1권이 ‘토라의 헌신자, 메시아 왕의 이상’으로 시작하여(시편 1-2편), ‘토라의 온전한 제자, 메시아 왕의 우주적 승리를 거처(시편 18-19편), ‘토라의 실천자, 메시아 왕의 간구’(시편 40-41편)로 주제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 시편에서 지혜시와 제왕시가 짝을 이루며 융합되는 현상은 이후 신약신학의 기독교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n Editorial Study of Pair Psalms
in the First Book of the Psalter
with Reference to the Wisdom and Royal Psalms**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Jin Hyun Kim
(Ph.D. Chongshin University)

Based on our observation that the torah psalms and the royal psalms appear at the strategic seams of the Psalter as a psalm pair (twin psalms; Pss. 1-2, 18-19, 72-73, 89-90, 110-112, 118-119, 132-133 and 144-145), we have researched the probability of the Psalter having been edited in its final shaping with a central theme of the royal messiah as a devotee to the Torah. Due to the limitation of this paper, we have concentrated our research on the first book of the Psalter, specifically on Psalms 1-2, 18-19 and 40-41. When J. Wilson first proposed the final shape of the Psalter, he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editorial role of Pss. 40-41, since they are not regarded as a pair of royal and wisdom psalms. However, our study of both psalms, in terms of the status of the psalmists, key words and themes, allows us to label them as a “semi-wisdom psalm” (Ps. 40) and a “semi-royal psalm” (Ps. 41). If so,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first book of the Psalter was shaped by a dual frame of wisdom and royal psalms (Pss. 1-2) and semi-wisdom and semi-royal psalms (Pss. 40-41).

In order to decide the pair psalms, we formulated the following criteria: (1) genre correspondence, (2) lexical semantic

correspondence, (3) image correspondence, (4) thematic correspondence and (5) editorial significance. We conclude that there is a progression of thought in the flow of the first book of the Psalms, from the messiah as a devotee of torah in his inauguration ceremony (Pss. 1-2), to the militant messiah as the holistic disciple of the torah (Pss. 18-19) and finally, to the messiah as the performer of the torah in his daily service. We expect that this categorization of the wisdom psalm and the royal psalm as a pair psalm in the final shape of the Psalter w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New Testament christology.